



박소현의 섹.시.토크

삼십대 후반의 주부 C는 몇 달 전부터 조조영화를 보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취미 카페에 가입하기 시작한 지 2년째, 처음엔 건강을 생각해 30대 모임 산악회에 가입했다가 하산하기 무섭게 이어지는 술판을 견디지 못해 탈퇴해 버렸고, 그다음엔 또래 주부들이나 사귀어 볼까 싶어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가 이것도 얼마 못가 사들여 버렸다. 그러다 찾은 것이 조조영화를 보는 인터넷 카페였다. 오전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부들뿐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주에 두 번씩 자는 조조영화 관람 모임엔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들, 그것도 주로 젊은 남자들이 많았다. 하루는 그들 중 유난히 외모가 출중한 총각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 참 기분이 묘했다. 그동안은 영화에 몰입하느라 옆에 누가 앉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옆자리에 신경이 쓰여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판이다.

온화하게 감도는 스킨 향은 후각을 마비시켰고 어쩌다 실수로 살짝살짝 닿는 팔은 정신을 마비시켰다. 어느새 C는 화면이 어두워질 때 마다 옆 모습을 몰래 훑어볼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남편과는 일년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갈까 말까지만, 어쩌다 가 봤자 2시간짜리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 한번 잡아주는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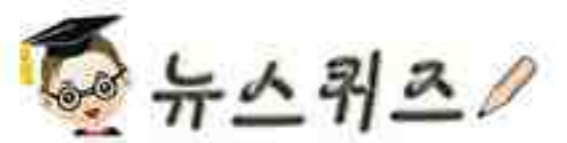
외모 출중한 총각이 옆자리 앉았는데 기분이 묘했다 신경이 쓰여 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판이다

으로 기울이는 남자 때문에 C는 2시간이 곤혹의 세레나데였다. 무엇보다 이 남자 역시 자꾸 자세를 고쳐 앉으며 C가 시도했던 '팔 스치기' 전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총각들과 스칠 때는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종년 남자와 스칠 때는 소름이 순식간에 돋았다. '이 남자 왜 이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하는 표정으로 살짝 재러보는 것도 잊지 않았지만 남자는 모른 척 계속 '팔

어둠 속에서 팔이 스칠 때

스치기'를 시도했다. 그날따라 젊은 총각들은 모두 젊은 아가씨들과 짝이 되어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C는 눈으로 그네들을 훑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 친구들에게 내가 이 남자 같았던 건 아닐까?' C가 카페를 탈퇴한 건 그 다음날의 일이다. 내겐 기본 좋은 자극이 상대에겐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아니다. 다만 단단한 팔근육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다. 세상 만사가 다 시들한 아줌마에게 그 참나의 즐거움은 생활의 활력이었다. 이것도 뒤집어보면 뻔한 결론이 나온다. 내 남편이 영화관에서 젊은 아가씨의 팔을 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할 말이 없어졌다. C는 혼자 영화 보러 다닌다. 어둠 속에서 외로워지는 두 팔을 위해 팔짱을 끼고 영화를 본다. 그래도 가끔 옆자리에 잘생긴 총각이 앉을 때면 생물학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C가 모임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애 칼럼니스트>



69. 미국프로야구 뉴욕 메츠에서 방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1호'인 이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 휴스턴행을 전격 결정, 마이너 리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LA 다저스에서 처음 빅리거로 데뷔한 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2005년 샌디에이고, 올 해초 뉴욕 메츠를 거쳐 다섯 번째 팀에 몸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박지성 ③ 이동국 ④ 이영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와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낼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음 5월 8일 丁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텔런트 명세빈(31)과 강호성(43)변호사가 오는 8월 화족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제31회 사법고시에 합격, 1993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서울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1998년 변호사로 나왔다. 이후 법무법인 두우 소속으로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시비를 비롯해 가수 백지영 등을 변호했고 현재는 병역 비리에 휩싸인 싸이의 변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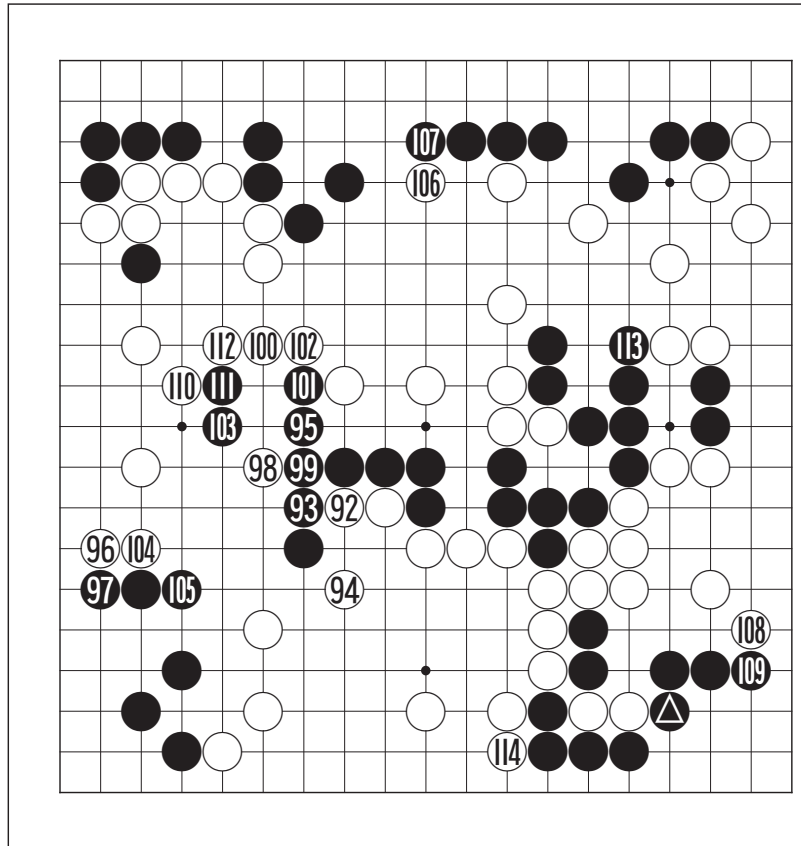
명세빈의 연인 강변호사 누구? 네티즌 궁금

받고 있다. 그룹 주연리 출신 가수 서인영의 섹시한 미니스커트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서인영은 지난 19일 열린 '삼성전자 애니콜 미니스커트 스타일 파티'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섹시한 춤을 선보였는데, 인터넷에서는 관련 동영상에 네티즌들에게 퍼날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삼순이'김신아가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 윤앤준으로부터 23억3천600만원에 이르는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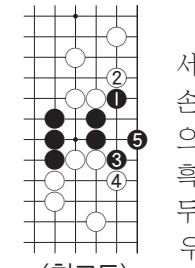
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유명 마술사 최현우(28·한국외대 3년)씨가 병역 특례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도 검색어에 올랐다. 이의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0일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인터리그 경기에서 날린 14호 홈런, 텔런트 채정안(30)의 파경, 가수 보아의 미니홈피 해킹 및 협박 사건도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에 포함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 애니콜 미니스커트 스타일 파티'행사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가수 서인영.



제16회 강일백 직장대항 단체 2회전



<참고도> 순식간에 박빙의 형세로 변해버렸다. 다군다나 94는 선수까지 된다. 역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식한 듯 유병수 5단의 손질이 출을 주고 있다. 먼저 백 96이 기본종은 선수이며 98로 일침을 가하고 100으로 지켜 아직까지도 흑 대마의 생사를 추궁하고 있다.

계속되는 헛손질 5보(92~114)

결정적인 찬스에 서 전지용 5단의 헛손질이 형세를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다. 흑 ▲로 94의 곳에 두었으면 결정적인 우세였는데 역으로 백이 이곳을 지키자 순식간에 박빙의 형세로 변해버렸다. 다군다나 94는 선수까지 된다. 역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식한 듯 유병수 5단의 손질이 출을 주고 있다. 먼저 백 96이 기본종은 선수이며 98로 일침을 가하고 100으로 지켜 아직까지도 흑 대마의 생사를 추궁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여류팀, 지지옥션배 우승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에서 여류기사들이 시니어팀을 꺾고 우승했다. 여류팀의 2장 박지은 7단은 21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제22국에서 시니어팀의 주장 조훈현 9단에 겨루는 279수만에 백 반집승을 거두고 여성팀에 우승을 안겼다. 이날 대국에서 박지은은 중반까지 조훈현 9단 특유의 패색행마와 노련한 반면 운영에 말리며 패색이 짙었으나 조 9단의 방심을 틈 타 좌중양 전투에서 승리하며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시니어팀 조 9단은 막판 6연승을 거두는 등 도장투혼을 발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et's go to a baseball game. 야구경기 보러 갑시다. A: Let's go to a baseball game. B: Do you know where the baseball stadium is? A: No, but I can always ask. B: All right, but I won't sit in the bleachers. It's too hot today. A: Have it your way. A: 야구경기 보러 갑시다. B: 야구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A: 아뇨, 하지만 물어보면 되죠. B: 좋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외야석에는 앉지 않을 것입니다. A: 그렇게 하십시오. Have it your way =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야구 팀을 응원하실 것입니까? = What baseball team do you root for? bleachers : 외야석 저는 운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 I'm not good at sports.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훌륭한 집이군요. A: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B: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退職金(たいしよくきん)をはたいて建(た)てたんですよ。 A: 周(まわ)りに緑(みどり)が多くて環境(かんきょう)もいいし 素晴(すば)らしいですね。 B: ええ、私達(わたしたち)も氣(き)に入(い)るんですよ。 A: 훌륭한 집이군요. B: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털어서 지은 집입니다. A: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 환경도 좋고 멋있습니다. B: 예에, 우리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お住(す)まい: 주거, 주소 退職金(たいしよくきん): 퇴직금 はたく: 털다, 털어내다 氣(き)に入(い)る: 마음에 들다

什么时候开始的. 언제부터 시작 됐니. A: 发烧吗? Fāshāo? 파 사오 마? B: 有点发烧. Yǒudiǎn fāshāo. 어유 디얼 파사오. A: 什么时候开始的? 你得到医院去看. Shénme shíhòu kāishǐ de? nǐ déi dào yīyuàn qù kànkan. 셴머 시허우 카이시 데? 니 데이 따오 이위원 취 칸칸. B: 好的, 没关系. Hǎo de, méiguānxi. 하오더, 메이 구안 시. A: 열이 나니? B: 조금 열이 나. A: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너는 꼭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봐 B: 응, 괜찮아. 发烧 [fāshāo] 열이 나다

한자 이야기 <549> 難兄難弟 (난형난제) 어려울 난, 형 형, 어려울 난, 아우제. 난형난제(難兄難弟)는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람의 낯과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움의 비유이다. 비슷한 성어에 막상막하(莫上莫下)와 백중지세(伯仲之勢), 그리고 호각지세(互角之勢) 등이 있다. '상상군자(象上君子)' 일화로 유명한 진식(陳寔·104-187)은 후한 말엽, 환관(宦官)들의 전횡이 심할 때, 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겨우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손자들을 교육시키며 노후를 보냈다. 그의 장남 원방(元方·이름은 詡)은 후한 말 동탁 밑에서 시중으로 승진했으나 동생인 계방(季方)은 젊어서 죽었다. 원방의 아들 장문(張文·이름은 暉)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위문제 조비 밑에서 대신이 되어 유명한 '구물관인법'을 입안 제정하기도 했다. 그 장문이 어릴 때 계방의 아들인 효선(孝先·이름은 忠)과 서로 자기 부친의 공적을 가지고 우열을 논하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조부 진식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진식이 말하기를, "원방은 형, 계방은 아우지만 덕행으로 보면 원방을 형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방을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난형난제'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世說新語)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이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